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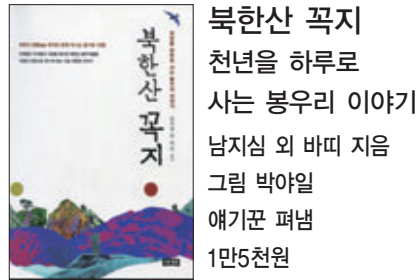
지혜의 보고 佛書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12/11 ~ 12/17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6	닫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7	비밀수록 가득하네	정독	샘앤파커스
3	당신을 만난 건 축복입니다	청전	한겨레출판사	8	붓다 수업	법상	민족사
4	알고 보면 괜찮은	마가	불광출판사	9	참선 잘하그래이	김형효	김영사
5	천당과 지옥은 번지수가 없다	김진태	동승동	10	괴로운 어디에서 오는가	평형외신 권	운주사



산과 인간은 마음을 가진 친구



북한산 꼭지 천년을 하루로 사는 봉우리 이야기. 남지심 외 바피 지음. 그림 박아일. 애기꾼 펴냄. 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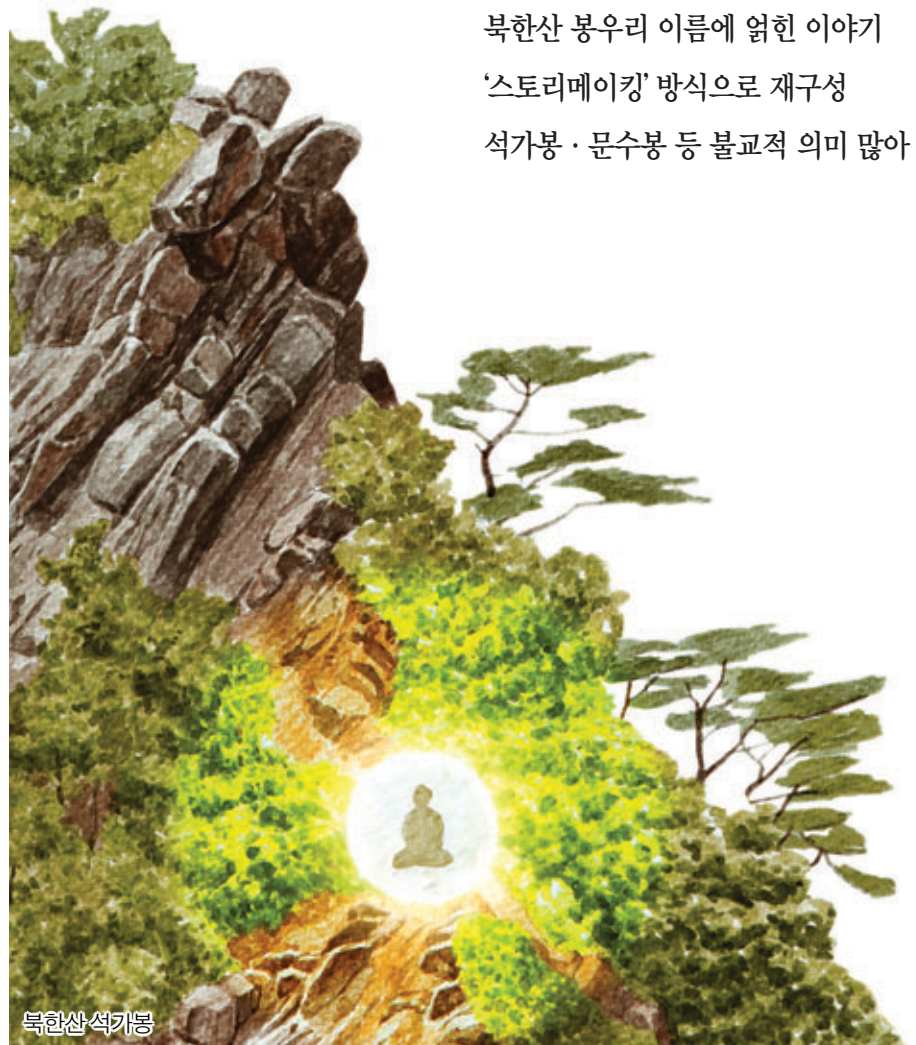
인류는 자연의 일부이고 '자연'이라는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 빠르게 변하고 있는 문명이 자연을 함부로 하고 있지만, 그 문명이라는 것도 결국 자연 위에 존재하는 것임은 분명한 사실일 것이다. 그만큼 인류에게 자연은 소중한 것이다. 그 중에서 가까이 있는 '산'은 자연이라는 말보다 '위안'이라는 말로 불러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그 사실과 고마움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 산은 늘 가까이서 인간을 위로해 왔다. 오늘날도 수많은 이들이 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일 것이다. 책은 연인원 1천만 명이 찾은 서울의 명산이며, 우리나라 오악(五嶽)의 하나인 북한산 이야기다. 책은 올 10월부터 현대불교신문에 '불보살이 상주하는 북한산이야기'라는 제명으로 연재되었던 부분과 미공개 부분을 합쳐 출간한 것이다.



산이 포함돼 있으며 이 산들은 오랜 세월 동안 인간과 관계를 맺으며 영육을 함께 해왔다. 그러면서 인간들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아 현재 북한산에는 40여 개의 봉우리가, 도봉산에는 10여 개의 봉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책은 이 중에서 북한산 봉우리 27개와 도봉산 봉우리 3개가 어떻게 지금과 같은 이름을 가지게 되었는지를 주인공 소년 '대환'과 북한산 정령(精靈) '꼭지'가 알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다.

오랜세월 인간과 영육 함께한 북한산 봉우리 이름에 얽힌 이야기 '스토리메이킹' 방식으로 재구성 석가봉·문수봉 등 불교적 의미 많아



수려한 산봉우리,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울창한 숲이 어우러진 북한산. 수도에 북한산과 같은 명산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될까? 북한산이 서울의 공기를 청정하게 해 준다는 이점 이외에 삶에 지친 도시인들에게 주는 정신적인 위안은 무엇으로도 환산할 수 없다.

북한산의 주봉은 백운대, 만경대, 인수봉이다. 멀리서 봐도 한 눈에 들어오는 세 봉우리는 잘 생긴 뽕과 같다고 해서 예로부터 삼각산(三角山)으로 불리어왔다. 조선 건국 당시 인수봉을 성 안으로 넣느냐 마느냐를 놓고 논란을 빚다가 성 안으로 넣지 말자는 쪽이 우세해 인수봉은 성 밖으로 밀려났다. 성 안으로 넣자는 쪽은 무학대사 측이었고, 성 안으로 넣지 말자는 쪽은 개국공신 유생들이었다. 결국 불교와 유교의 힘겨루기에서 불교가 밀려난 것이다.

북한산성이 처음 축성된 것은 백제개국과 때를 같이 했다고 한다. 그 후로도 여러 번 축성했던 기록이 있는데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춘 것은 조선 제 19대 임금인 숙종 때였다. 산성은 백운대와 만경대를 이어 쌓았는데 성 안, 성 밖을 비롯하여 전체 북한산에는 40여 개의 봉우리가 저마다의 이름을 갖고 멋진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부처님의 전생으로 배우는 불법(佛法)

연꽃 속에서 나온 소녀 한국불교아동문학회 엮음 | 대영미디어 펴냄 | 1만원



한국불교아동문학회(회장 신현득)가 개작동화집 '동화로 쓴 본생경' 시리즈 다섯 번째 '연꽃 속에서 나온 소녀'를 펴냈다.

에서 어린이와 일반 독자들을 위해 49편의 이야기를 뽑아 다시 동화로 만들었다. 부처님이 남긴 팔만법문은 동화의 바다다. 부처님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곁들여 설법하셨는데, 특히 <본생담>은 교훈적인 요소들이 담긴 '이야기'들이다. "나는 이런 선한 일을 해서 부처가 되었으니 너희도 본받아 성불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다.

<본생경(자타카)>은 석가모니부처님의 전생 이야기를 다룬 경전이다. 부처님은 전생에 국왕, 바라문, 상인, 여인 그리고 사슴의 왕, 비둘기의 왕, 원숭이의 왕, 물고기의 왕 등 수많은 동물의 왕으로 살면서 중생의 위난을 구제하고 법을 구하고 전생이야기를 '본생담'이라 하고, '본생담' 547화를 하나의 경전으로 엮은 것이 <본생경(자타카)>이다. 책은 <본생경> 중

세계아동문학사에는 기원전 4세기에 이루어진 <본생경(자타카)>이 동화문학의 원류로 소개되고 있는데, 널리 알려진 이솝우화 '대머리 남자와 파리', '황금 알을 낳는 거위', '사자 가죽을 쓴 나귀', '개와 그림자' 등이 <본생경>에서 시작됐음을 짐작케 하는 것만 보아도 부처님 말씀이 세계 아동문학에 끼친 영향이 분명하다.

책은 '까마귀와 새입금', '개와 코끼리의 우정' 등 재구성한 동화 49편으로 구성했고, '생각 키우기'에서 줄거리와 교훈을 정리해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한다. 박재원 기자

이 겨울, 손난로 같은 수행 에세이

아름다운 향기만 남을 때까지 현원 지음 | 맑은소리 맑은나라 펴냄 | 1만2천원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지만 훗날 라후라에 대하여 알게 된 후, 나는 엉터리 거짓말로 장난을 쳤던 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나 역시 출가한 이후

雨', '용서', '나를 위한 기도', '내 마음의 보약 한 첩', '회향의 삶을 위하여', '내 마음에 씨앗 하나'의 다섯 가지 소재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원 스님은 도심 포교당에서 불자들을 제접하는 가운데, 그 평범한 일상에서 선을 고정하고 평소 놓치기 쉬운 삶의 가치와 철학에 대해 풀어내고 있다. 동진출가한 12살, 그 시절로 돌아가 방황했던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을 시작으로 선한 목표를 가지는 삶,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함으로써 비로소 알게 되는 용서의 참뜻, 매 순간 수행으로 살아낸 삶의 진정한 회향에 대해 이야기 한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접어들어 비로소 출가의 의미를 정립하고 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들어 날마다 집으로 도망가고 싶은 마음과 싸우곤 했습니다. 한창 뛰놀 나이의 아이가 어른 스님들과 똑같이 수행하며 공부해야 하다는 것은 정말이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장난을 치며 마음을 달랬던 라후라와 달리 나는 누군지도 모르는 막연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또 원망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걸림 없이 읽어낼 수 있도록 일상의 언어로 채워진 이야기들은 스스로를 다지는 자구의 죽비인 동시에 상을 버릴 수 있는 지혜의 밑거름이 되고 삶의 여유와 아름다운 인연을 찾아주는 깨달음의 언어들이다. 여기에 김은주의 간결한 일러스트가 사문의 예세이와 어울린다. 출세간이 따로 없이 깨달음을 향해 가는 이들에게 울 겨울 주머니 속 손난로 되어줄 책이다. 박재원 기자

대전 불국사 주지 현원 스님의 수행 에세이다. 책은 2003년 출간되어 한동안 절판된 이후 도반들의 원력으로 10년 만에 재출간되었다. '내 마음에 내리는 비(法

대전 불국사 주지 현원 스님의 수행 에세이다. 책은 2003년 출간되어 한동안 절판된 이후 도반들의 원력으로 10년 만에 재출간되었다. '내 마음에 내리는 비(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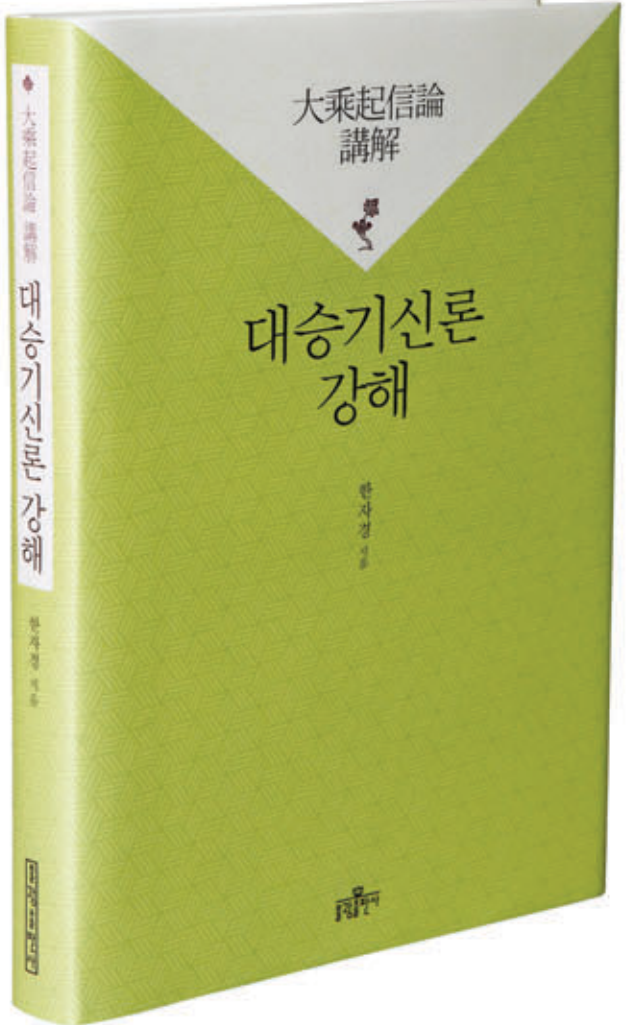


대승에 대한 믿음이란 무엇인가?

원효와 법장의 소(敎)를 비교·분석하며 일심(一心)과 진여·생멸 이문(二門)의 참뜻을 논리정연하고 상세하게 해설!

원효의 『대승기신론소』와 『별기』 및 법장의 『대승기신론의기』를 비교하면서 『대승기신론』을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강해하고 있는 이 책은, 저자의 깊은 이해력과 창의적인 해설, 다양한 도표, 명쾌한 문장 등이 돋보인다.

한자경 韓慈卿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와 동 대학원 석사학위 취득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한철학 전공)를 받았으며, 동국대학교 대학원에서 불교철학으로 박사학위(유식불교 전공)를 받았다. 계명대학교 철학과를 거쳐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저서로는 『한교와 초월철학』, 『지아의 탐미』, 『지아의 연구』, 『유식무경』, 『동서양의 인간이해』, 『일심의 철학』, 『불교철학의 전개』, 『한교철학의 초해』, 『불교의 무어론』, 『21차(宇)의 여정』, 『명상의 철학적 기초』, 『한국철학의 맥』, 『해별 정신현상학의 이해』, 『불교철학과 현대문화의 만남』 등이 있다.



大乘起信論 講解
대승기신론 강해
416면 | 값 22,000원